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2014년 3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시련 속에서 주님을 경외함

(집회 2, 1-9)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17장 ‘내가 절망 속에’ 1절과 4절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시련 중에 더 가까이 계셔 주시는 주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 시련을 당할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이끌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집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얘야, 주님을 섬기러 나아갈 때 너 자신을 시련에 대비시켜라.
네 마음을 바로잡고 확고히 다지며 재난이 닥칠 때 허둥대지 마라.
주님께 매달려 떨어지지 마라. 네가 마지막에 번창하리라.
너에게 닥친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처지가 바뀌어
비천해지더라도 참고 견뎌라.
금은 불로 단련되고 주님께 맞갖은 이들은
비천의 도가니에서 단련된다.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길을 바로잡고 그분께 희망을 두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그분의 자비를 기다려라.
빛나가지 마라. 넘어질까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그분을 믿어라.
너희 상급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좋은 것들과
영원한 즐거움과 자비를 바라라.
그분의 보상은 기쁨을 결들인 영원한 선물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겪은 시련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 시련 중에 만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희, 노, 애, 락의 모든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코헬렛의 저자는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다.”(코헬 3,1.4)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일상 안에 하느님의 축복으로 인한 기쁨의 때가 있는가 하면 시련으로 인한 고통의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의 축복으로 인한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마치 자신이 그 일을 이루어낸 것처럼 의기양양 할 때가 있는 반면 시련의 때에는 자신이 겪지 않아야 할 것을 겪는 것처럼 몸부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매일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 그 시련은 너무 강도가 커서 우리를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혹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느님이 생각하시는 “그 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련의 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불평과 불만, 좌절과 저주, 자책이 아니라 인내와 기도, 그리고 시련이 온전히 지나간 이후 내게 찾아올 축복에 대한 기대일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겠지만 시련 앞에서 더 큰 마음으로 하느님께 신뢰하여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느님의 손길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경외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최민순 신부님의 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제가 가는 길에서...

예수님, 오늘도 제가 가는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 험한 고갯길을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예수님, 오늘도 제가 가는 길에서 부딪히는 돌이 저절로 굴러가기 원치 않습니다.

그 넘어지게 하는 돌을 오히려 발판으로 만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오늘도 제가 가는 길에서 넓고 편편한 그런 길들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좁디좁은 험한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도록 힘을 주소서.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리합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8장 ‘주님을 부르던 날’ 3절까지 노래하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주일은 작은 부활이라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사순 시기라도 주일은 작은 부활이라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주일날 바쳐도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묵인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교황님께서 공식적으로 바치는 교회행사일지라도 신심 행위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비롯한 예수 성심 공경, 성모 공경, 성인 공경 등의 신심 행위들은 모두 종교적 행위일 뿐 전례 행위가 아닙니다. 일례로 미사 시간에 집중이 더 잘된다고 해서 묵주 기도를 바치면 안 되듯이, 신심 행위로 메달이나 상분을 부적처럼 인식하거나 하느님처럼 공경해서는 안 됩니다.

신심 행위란 신자들이 따스하고 친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모든 신심 행위는 하느님을 향한 예배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때문에 ‘작은 부활’인 주일의 의미를 망각한 채, 십자가의 길을 습관적으로 바친다면 전례 정신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사순 판공성사의 십자가의 길을 보속으로 받은 경우, 주일에만 시간이 나는 분의 경우라면 상황을 참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주일 외의 미사가 불가한 분들도 개인적 보속으로 스스로 발하는 신심 행위로 행할 때에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겠지요. 가톨릭 기도서가 “아무 때나 바칠 수 있지만 특별히 사순시기 금요일과 성 금요일에는 마땅히 바쳐야 한다.”라고 권고한 이유를 살피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임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니까요.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시편 27,1)

- 함양성당 한주구역

한없이 자비하신 예수님께 찬미 영광 드립니다.

저희 함양성당은 1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당 주보 성인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모시고, 시대의 변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시는 어르신들의 기도와 봉사, 신자들의 열정으로 성당 신축과 100주년의 행사를 잘 치를 수 있게 되었음을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함양성당에는 9개 구역이 있고, 저희는 그 중 하나인 한주 구역입니다.

1980년대 후반 포교분과장 노경환(이나시오) 형제님을 시작으로 한 반모임은 15개 구역이었으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소공동체 모임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함양은 아파트도 별로 없고 대부분 작은 주택들이라 한 구역에 20명 이상이 모이면 방이 좁아 마루에 앉고 때로는 명석을 마당에 깔고 앉기도 했습니다. 복음나누기 7단계를 통한 신앙체험을 나누고 구역의 어려움을 서로 도와 주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복음말씀으로 한 달을 살아감으로써 신앙 체험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소공동체 모임의 중요성이 많이 퇴색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모임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올 한 해 저희 반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한 자세로 서로서로 힘이 되어 주며, 두려움 없이 냉담 교우 회두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들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저희 소공동체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용기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강하게 하시도록 그분께 매달려라.(집회 24,24)



〈 함양성당 한주구역 반원들 〉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